3일 오후 인천문학경기장에서 열린 민주당 2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민주당 신임 지도부로 선출된 손학규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당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심 업고 '새판짜기'… 기득권 초긴장

■ 손학규호 출범 의미와 과제

당직자 저항에 쇄신·개혁 험로 예고
진보·중도층 껴안은 대선행보 시작

'춘천 칩거 2년'의 손학규가 제1야당 대표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손 대표가 2년여 칩거로 인한 조직 열세라는 숱한 불리함을 이겨내고 민주당의 선택을 받은 것은 2012년 대선에서 정권 탈환의 가능성이 가장 큰 후보라고 여겨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손 대표도 전당대회 선거운동 기간 내내 정권 탈환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고 이에 대의원들이 지지로 화답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정세균 후보는 지난 2년의 당 운영에 대해 심판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비록 지역위원장 등 상위 그룹에서 월등한 조직력을 보였지만 저변에 깔린 당심의 힘에 밀린 것이다.

또 정동영 후보는 지난 대선 패배와 탈당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아직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지만 2위를 차지, 재기 가능성을 열었다.

손 대표가 정치 복귀 2개월여 만에 민주당 대표가 됐지만 그 앞에는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우선 정세균 체제로 굳어진 당 체질을 개혁해야할 임무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은 행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 운영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당직자들의 거센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그동안 숱하게 당직자 등에 대한 쇄신과 개혁이 요구됐지만 반발로 무산됐다"며 "하지만,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당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고 이것의 첫 번째 작업이 당직자 개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또 민주당 지지도 뿐 아니라 자신의 지지도를 올리는 것에 상당한 공을 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스스로 선거운동 기간 중 '당 지지도 1위'를 공약했을 뿐 아니라 수권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 지지도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로서 지지도를 올리는 것도 간과할 수 과제다. 1년 이내에 제 1야당의 대표이자 대권주자에 걸맞는 지지도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대선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를 위해 진보 노선을 유지하되 '실천적 진보', '더 큰 진보'를 내세워 중도층까지 껴안는 광폭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개혁과 진보에 더해 중도가 힘을 합해야 정권을 찾아올 수 있다는 이른바 '삼합 필승론'이다.

손학규 체제의 출범은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 간 경쟁을 부추기는 기폭제가 돼 정치권을 조기 대선 정국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이미 대선후보를 향한 경쟁이 시작됐고, 손 대표 스스로가 야권의 유력한 대선후보이기 때문이다.

손 대표는 대여 관계에 있어서는 대화와 타협의 기조로 다소 유연한 입장을 취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지만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정통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더욱 선명성을 강조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러나 지도부 인사간 권력 분점이 이뤄지는 순수 집단지도체제하에서 손학규판 개혁이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라이벌인 정세균, 정동영 최고위원이 나란히 지도부에 포진, 팽팽한 긴장관계가 구축됐기 때문이다. 당장 비주류 그룹이 부유세 신설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요구 등을 들고 나오며 진보적 색채 강화를 압박할 가능성이 커 노선 투쟁도 격화될 조짐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광주·전남 출신 지도부 2인

천정배, 쇄신연대 지원 5위 '선전'· 3위 기대 박주선 6위 '턱걸이'

3일 치러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광주·전남지역 출신인 천정배, 박주선 의원이 최고위원에 선출, 지도부에 입성했다.

그러나 천정배 의원은 5위, 박주선 의원은 6위에 그쳐 지역 정치권에서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우선 목포 출신의 천정배 의원은 당 비주류 연합체인 쇄신연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5위를 차지했다. 또한, 2위를 차지한 정동영 의원과의 연대도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당초 탈락 가능성마저 제기됐던 천 의원은 5위로 지도부에 진출함에 따라 정치적 재기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천 의원 측 관계자는 "천 후보의 지도부 진출은 민주당의 변화를 이끌어 가라는 당원들의 성원이 막판에 표심으로 연결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3위 이내 입성이 기대됐던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6위를 차지하는데 그쳐 체면을 구겼다. 박 의원은 당원 여론조사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얻어 상위권 도약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위를 차지한 손학규 의원와의 연대 전선도 굳건하지 못했으며, 일부 당권 주자 측의 배제 투표 등으로 기대 밖의 6위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박주선 의원의 당내 입지는 당분간 현상을 유지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박 후보 측근 인사는 "당초 3위 입성을 기대했으나 당원 여론조사 결과가 좋지 않았다"며 "그래도 지도부에 진출한 만큼 광주·전남지역 민심의 창구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천정배 의원이 5위를 기록하며 지도부에 진출한 것에 대해 나름대로 선전했다는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정치적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적 기반을 더 닦아야 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반면, 선전이 기대됐던 박주선 의원이 6위에 그친 것과 관련해서는 '의외의 결과'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대권 주자로 부상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아니겠느냐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천 의원은 나름대로 선전한 것 같아 기쁜 마음이지만 박주선 의원이 부진한 성적을 거둬 아쉽다"며 "두 의원이 민주당 지도부에서 지역 민심을 대변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손학규 누구인가

70년대 운동권 출신 정체성 시비 털고 야권 '적통' 안착

"10월3일은 민주당이 수권의지를 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다", "잃어버린 600만표를 되찾아 서민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다"

민주당의 10·3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로 뽑힌 손학규 신임 대표는 선거 기간 차기 대권에 대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결국 차기 집권 가능성을 엿보려면 민심에서 앞선 인물을 당의 얼굴로 세워야 한다는 당내 요구는 춘천에서 2년간 칩거한 그를 대표로 끌어올렸고, 이로써 그는 대권가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특히 호남 기반의 견고한 지역 벽을 뚫고 당당하게 당심의 선택을 받음으로써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지긋지긋한 정체성 시비를 털어내고 야권의 '적통'으로 안착하게 됐다는 평가다.

손학규 대표는 70년대 서울대 재학 중 반독재 투쟁을 했던 재야 운동권 출신이다. 유신 체제 종식 후 영국 유학길에 올라 옥스퍼드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인하대와 서강대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는 문민정부가 출범한 93년 광명 보궐선거에서 민자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뒤 광명에서 내리 3선을 했으며 당내 소장개혁파의 리더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2002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로 당선되면서 대권주자의 반열에 올랐다.

경기지사에서 물러난 뒤 대권 도전을 노렸지만 2007년 3월 대선후보 경선 방식을 놓고 한나라당의 한계를 지적하며 탈당을 결행, 정치 인생의 최대 전환점을 맞게 된다.

이어 구 여권의 대권 레이스에 합류, 민심의 우위에 기댄 대세론으로 바람몰이에 나섰으나 취약한 조직 기반에 발목이 잡히면서 정동영 최고위원에게 대선 후보 자리를 내줘야 했다.

2008년초 대선 참패의 상처로 허덕이던 당에 구원투수로 투입, 과도기 대표로서 총선을 진두지휘했지만 본인은 서울 종로에서 패배하고 춘천으로 내려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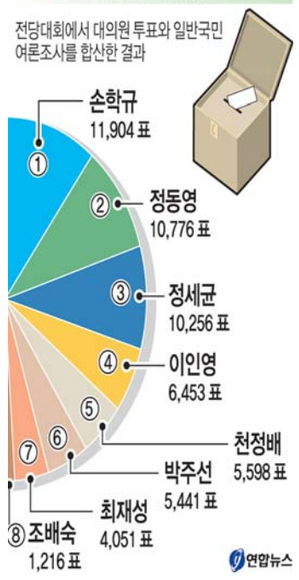
2년여의 칩거 끝에 지난달 15일 당권 도전 의사를 공식화하며 전격 상경, 당 대표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실천의 진보'를 내세운 당내 개혁으로 수권정당을 만들겠다는 그의 야심찬 도전이 어떻게 귀결될지 주목된다. 부인 이윤영(64)씨와 2녀.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손학규 민주당 대표 프로필

- **출생** 1947년 11월 22일(경기 시흥)
- **소속** 민주당
- **학력**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
- 영국 옥스포드대 정치학 박사
- **경력**
- 1988년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1990~1993년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제 14,15,16대 국회의원
- 2002~2006년 경기도지사(한나라당)
- 2007년 한나라당 탈당
- 2008년 통합민주당 공동대표



광주바이블칼리지 신(편)입생 추가 모집

GWANGJU BIBLE COLLEGE &THEOLOGICAL SEMINARY

Th.M.(신학석사)과정 개설

1년에 최단기 학위과정 완성 3개월 단위 한 학기에 8학점(전공필수 4학점, 전공선택 4학점) 이수하면 3학기에 졸업이수학점을 마치고 3개월간 논문완성해서 12개월에 학위 완성함.

최고의 교수진 선교, 치유상담, 구약, 고대근동어 분야에서는 한국최고의 교수진.

학비 저렴 타 대학 학비의 1/2 내지 1/3

진로 보장 ① 이 과정에 입학자는 100% T/A(교육조교) 자격증을 수여하고 최대 6회까지 지도교수의 전공강의 1/2을 현장강의 함.
② 우수졸업생 해외 Ph. D. 과정 유학을 보장하고 졸업생 전원 학부강의를 맡을 수 있는 기회부여.
③ 타 대학 출강 적극 추천
④ 수업시간:2주1회(학생편에서 시간이 있을 때 수업시간 자유)

모집 안내 10명까지 인원 제한. 지원 분야 (선교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역사신학)

입학 문의 학장 직접상담 ☎ 010-7413-1215, 061) 381-0000,1365

교 수 진

NO	교수명	과목	경력 및 현직
1	이환수 (이사장)	철학	미국 일리노이대학졸업, 5.18북미주대표, TX한인회장&상공회의소 회장, 한미인권연구소장, 광주바이블칼리지 이사장, 세린사회교육원 대표
2	최정만 학장	신약/선교학	서울대졸업, 미국Fuller대(석,박사), 이화여대, 총신대, 숭실대, 고신대강사, 광신대교수역임, 한국복음주의선교학회장, 한국신학자 최우수학술대상수상
3	채영애	실천신학	미국미시건대학교(학사), 영국브리스톨대학교(석사), 미국존합킨스대학교(석사), 미국콜럼비아대학교(Ph.D), 미국줄리안센터(연구원), 미국풀러신학대학원(연구원), 총신대학교 신교대학원(교수), JDI대표
4	윤영혁	조직/신학	총신대학교(M.Div.), 미SouthWestern대학교(Th.M), Regent대학교 조직신학(Th.D)
5	김명호	구약학	전남대학교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M.Div.), 전남대학교강사, 이스라엘히브리대학교 고대근동어(Ph.D), 광신대학교구약학교수역임,
6	전원호	신약학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M.Div), 화란깜펀신학대학(박사과정), 독일브레멘한인교회 담임, 벨기에브뤼셀한인교회, (현)광주은광교회 담임
7	조태익(교목실장)	구약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M.Div.), (현) 담양읍교회 담임
8	임 영	선교/영어	조선대학교 (영문학 학사, 석사, 박사) 선교총회(M.Div), 조선대, 동신대, 호신대 출강. 광주여자대학교 겸임교수, 세린사회교육원부설 국제어학원장
9	고경태	조직신학	총신대신대원(M.Div.)총신대학교(조직신학 Ph.D)취득, (현)주님의교회 담임
10	신동구	실천신학	개신대학원대학교(M.Div., Th.M)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Th.M), 예루살렘성서대학(Th.D), 백석대학교(Th.D), (현)주님의교회 담임
11	김봉진	윤리학	호남신학대학교, 장로회신대원(M. Div.), 호남신대(Th.M), 장신대대학원(Th.D)(현)담양개동교회 담임
12	손순용	사회복지학	전남대학공과대학, 경영대학원(인사관리) 동신대학교사회복지학박사, 전남도립대학교수
13	정현필(연구처장)	창조과학	한국항공대학교항공공학박사, 조선이공대학교수, 창조과학회이사
14	강대영	실천신학	전남대학교졸, 개신대학원대학교(M.Div.), 미국 국제신학대학교(Th.D.), (현)월송교회 담임
15	최사채	실천신학	개신원대학교(M.Div.), (현)영광염산제일교회 담임
16	김원식	교회 음악	전남대학교음악학과, 미국워싱턴대학교졸, (현)호신대학교강사
17	이길수	부흥 신학	감리교신학대학원졸업. 예수전도단(YWAM)DTS훈련강사, 새물결선교회부회장, 강사, (현)광주예향교회 담임
18	진장환	기독교 교육	개신원(M.Div.), 미 I.T.S 목회학 박사학위 과정, 서울경기신학교수

세린사회 교육원
- 웃음 치료(월 5만원)
- 텝스 영어(월 10만원)
- 영어 성경(월 10만원)
- 워십 찬양리더자 교육(월 7만원)

학부 및 신대원(M.Div)과정

1. 국내신학교 중 최고의 시설, 최적의 교육환경
   - 400명 수용 생활관, 체육관, 채플(예배당), 식당, 도서관, 교수연구실, 개인지도실 각종 연구소, 수영장, 산책로
2. 호남 최고 수준의 교수진 - 선교, 치유, 상담, 구약, 고대근동어 분야에서는 한국최고의 교수진
3. 최 단기 학위과정 완성 - 대학 학부는 2년 대학원은 1년에 졸업
4. 대 교단 총회인준신학교 - 졸업생 전원 100% 목사안수, 선교사파송(책임진로지도)
5. Venture Spirit
   - 전문성과 은사 그리고 Venture Spirit 를 가진 전문가(교수, 목사, 선교사)로 하여금 국내 또는 해외 선교지역에 교회를 개척케 한 후 그곳에 GBC졸업생들을 심어준다.
6. 특수지역, 특수교회를 위한 맞춤형 신학교육
   - 국내 도시 목회, 성목회 산골목회, 농어촌목회, 해외 선교별로 중국선교, 몽골선교, 중앙아시아 선교, 일본선교, 베트남선교, 캄보디아선교, 태국선교, 인도선교, 파키스탄선교, 중동선교.. 등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지역 복음 사역자들을 위한 맞춤형 특수교육과 훈련실시.
7. 국내에서 가장 저렴한 학비
   - 전교생 100%에게 장학 혜택이 주어지고 학생 본인 부담은 최소화
8. 해외교회 인턴십 제도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필리핀 등 해외 교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해외 자매교회에 단기 인턴쉽을 보낸다. (단기해외 현장 학습 및 실습)
9. 해외 대학들과 자매관계를 맺고 매년 심포지엄 포럼, 선교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10. 복수 학위제 실시
   - 모든 학위 과정의 절반은 국내 GBC에서, 나머지 절반은 해외 자매 학교에서 이수하고 학위는 양국에서 각각 준다. (한 과정 두개의 학위)

뜨거운 영성과 날카로운 지성의 조화
광주바이블칼리지
Gwangju College &Theological Seminary

평생교육의 1번지
세린사회교육원
후 원 : Chemolee Lab, Corp.(U.S.A)

http://www.gjbc.kr
전남 담양군 무정면 성도리 산 72번지
TEL. 061)381-1365/0000
FAX. 061)381-1367